

화성시

〈연혁〉

- 근대 이전 : 수원시 연혁 참조
- ※남양(南陽) : 당성군(唐城郡, 고구려) → 당은군(唐恩郡, 신라) → 당성으로 환원하여 수주(水州)의 속군으로 삼음(1018년) → 익주(益州, 1290년) → 강녕(江寧) → 남양부(南陽府, 1310년)
- 1413년(조선 태종 13) : 남양도호부로 승격
- 1895년 : 남양군이 됨
- 1914년 : 남양군이 수원군에 통합
- 1949년 8월 15일 수원시 승격, 수원읍을 제외한 수원군 지역은 화성군이 됨
- 1960년 : 오산면이 읍으로 승격
- 1963년 : 일형면이 수원시와 시흥군에 분할 편입, 태장면·안룡면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
- 1979년 : 반월지구출장소 설치
- 1989년 1월 1일 오산읍이 시로 승격(화성군에서 분리)
-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이 시로 승격

〈현황〉

- 면 적 : 688.28km²(6.8%, 경기도 제5위)
- 인 구 : 187,222세대 525,869명(2010.9.30 기준)
- 시장구호(슬로건) : 길이 열리는 화성시
- 상징물 : 시화(市花) - 개나리, 시조(市鳥) - 비둘기, 시목(市木) - 은행나무



화성 지역에 실제로 공룡이 살았을까?

1970년 말 화성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약 152km로 경기도에서 가장 길었다. 또한 갯벌이 제일 많았으며 풍부한 천연 자원은 화성의 넉넉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면서 자연유산의 보존과 상충하는 측면이 제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는 시화호 개발에 의해 탄생하였다. 1999년 4월 25일 한국해양연구원과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는 시화호 방조제 완공 이후 갯벌생태계 변화를 조사하면서 퇴적암층으로 이루어진 섬들 주변에서 공룡알 화석들을 처음 발견하였다. 문화



공룡알 화석지

재청은 이곳의 화석들과 퇴적암층이 자연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여 15,963,224㎡를 천연기념물 제 414호로 지정하였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는 고정리 산5번지 및 자동차 성능시험소 북쪽, 문호동 서쪽과 송산면 우음도 사이에 위치한다. 현재 화석지의

서쪽은 고정리와 우음도 간 임시도로에 의해 경계지어진다. 화석지의 퇴적암층은 시화방조제 완공 이전에는 섬이었던 한염·상한염·중한염·하한염·닭섬·개미섬 등 6개의 섬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알은 직경 8~15cm정도이며, 세 가지의 다른 종 200개 이상이 20여 개의 둥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두꺼운 껍질로 추정되는 두께 5mm의 알 화석도 발견되었다. 같은 종의 공룡알 화석이라도 그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퇴적암층과 함유된 화석이 차별적으로 침식된 결과이다. 고정리 화석지의 규모나 발견된 화석의 수는 우리나라의 공룡 관련 보호지 중 최대이고 중국·미국·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세계적인 규모이다.

고정리 화석지 퇴적암층은 시화호 방조제 완공 이전의 조류와 해파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매우 기괴하고 다양한 형상을 띠고 있으며, 모래와 자갈질 암층과 붉은 색의 세립질 퇴적층이 서로 교호하는 색상을 보여 주변의 광활한 개활지의 갈대숲과 함께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계절마다 다양한 조류가 이동하여 서식하며, 희귀한 양서류·파충류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 되었다.

공룡알이 모래 속에서 부패되지 않고 부화되도록 껍질에는 새나 닭 등 조류의 알과는 달리 크고 많은 숨구멍이 발달하여 있다. 공룡알 화석들의 윗부분은 거의 모두가 깨져있다. 이것들 중에 껍질 파편이 공룡알 속의 아래 부분에 쌓여있는 것들은 부화되기 전 다른 동물에 의해 내용물이 먹힌 것이고, 껍질 파편이 알 속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부화되어 새끼 공룡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갈들과 함께 껍질 파편들이 알 속에 나타난 것들은 갑작스러운 퇴적물의 퇴적으로 둥지가 덮쳐져 부화되기 전에 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에도 악어알·거북알의 부화과정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화석지에서 공룡알 화석은 대량으로 발견되지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모



공룡 화석

래 해변이기 때문이다.

공룡알 화석은 퇴적암층의 상부 침식면이나 퇴적암층의 수직 침식면, 또는 해식 동굴의 천장 등에서 다양한 지형에서 나타나며, 퇴적암층의 최소한 10개 층준에서 산출되고 있어서 화석지는 오랫동안 공룡의 집단산란지이자 서식지였음을 나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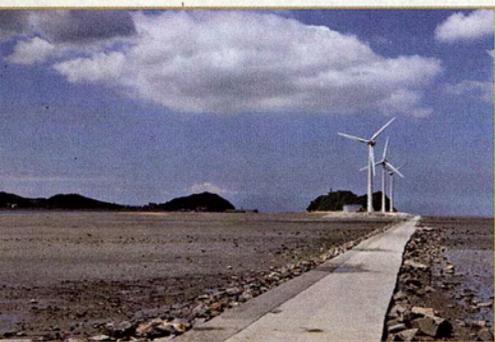
다. 퇴적암층의 특성으로 보아 화석지는 중생대 백악기에 물의 흐름이 비교적 조용하지만 간혹 홍수에 의해 자갈과 모래와 같은 퇴적물이 쌓이기 좋은 충적선상지로 공룡이 서식하고 산란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던 환경이었다. 퇴적암층에는 공룡알 화석과 함께 당시 하천에서 서식한 저서동물들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생물흔적화석이 나타난다.

2008년 5월 30일에는 경기국제보트쇼 행사를 위한 전곡항 일원 정비 중 새로운 공룡화석이 발견되어 이목을 끌었다. 발견된 화석은 길이 1m, 폭 0.6m, 높이 0.5m의 적색 사암으로 '코리아프로토크라투스 화성렌시스'라는 학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크기의 화석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추가적인 공룡화석의 발견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한반도와 몽골의 시대적 연관성을 고증할 화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국제학회에 논문을 게재하여 국제적 인정과 한반도 화석의 독창성·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2000년 『시화호 공룡알화석지 지표조사』, 2002년 『공룡알 화석지 개발 타당성 학술용역』, 2003년 이후 매년 공룡알 보존처리, 2005년 『공룡알화석지 기본계획 용역』, 2010년 『공룡 화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석산지의 보존방향과 관광 편익성을 고려하고, 원시시대의

역사 학습장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화석지 주변은 친환경 그린시티의 조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자동차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도입하여 동아시아 공룡연구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은?



제부모세 길

제부도는 서신면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다. 원래 제부도는 어린이를 업고 가는 늪을 도와 갯골을 건너게 하였다는 제부약경(濟扶葯徑)으로부터 유래하였다. 또한 제부도로 건너는 길이 없던 시절 겨울에 제부도를 가려면 얼음을 딛고 다녀야만 했다. 그러다가 자칫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했는데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검불 등 무엇인가를 붙잡고 건

너야만 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제부리(濟扶里)가 되었다고도 전한다. 제부도의 행정구역명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로, 동쪽 맞은편의 육지 송교리 사이 2.3km 거리의 갯벌이 하루에 두 번씩 드러나는 해할현상(바닷길 갈림)을 볼 수 있다. 해할은 송교리와 제부리 사이에 모래·자갈 언덕이 발달하여 수심이 낮아지는 썰물 때에 이 지형이 드러나는 현상이며, 사리 때에는 4시간 이상, 조금 때에는 1시간 정도 지속된다. 지금은 포장공사를 하여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길 양쪽으로 폭이 500m가 넘는 갯벌이 펼쳐지는데 왼쪽은 진흙밭이고 오른쪽은 모래

와 자갈이 섞여 있다. 섬으로 들어서면 바로 갈래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로 들어서면 그림 같은 해안선과 기암괴석, 넓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갯벌을 만나게 되고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광어·우럭·꽃게 등의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포구를 만날 수 있다. 제부도 해할현상은 일명 ‘제부모세’로 불리며 화성8경⁶³⁾ 중 하나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섬은 역삼각형으로 면적은 0.97km², 연장 해안선 약 12km의 규모가 작은 섬으로 지질학적으로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부도의 북쪽으로는 안산지역의 대부도·선감도·탄도·불도 등이 있으며, 섬 중앙의 62.5m를 최고봉으로 약간의 구릉지가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를 이룬다. 서쪽과 북쪽에 약간의 농경지가 발달해 있고 육지와 연결되는 동쪽 해안선을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과 관광에 종사하고 있으며 굴 양식이 활발하다.

제부도 주변의 해안은 수심이 얇고 조차가 커서 대부분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나 서쪽 해안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파랑의 작용이 우세하여 사빈이 발달,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었다. 해수욕장 후면에는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으나 해수욕장 시설이 설치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 남서쪽 해안 끝 부분에는 매바위(일명 삼형제 솟대바위)가 해파의 침식으로 우뚝 솟아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매바위는 말을 붙잡고

63) 화성팔경

- 용건백설(隆乾白雪) : 용건릉에 백설이 덮인 풍경
- 용주범종(龍珠梵鐘) : 용주사의 범종
- 제부모세(濟扶Moses) : 하루 두 차례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
- 궁평낙조(宮平落照) : 서신면 궁평리의 낙조 경관
- 남양황라(南陽黃羅) : 남양의 황금벌판
- 입파홍암(立波紅巖) : 입파도의 붉은 기암괴석
- 제암만세(堤巖萬歲) : 3·1만세운동과 제암리 순국
- 남양성지(南陽聖地) : 천주교도 순교지



매바위

가는 말구중꾼 형상의 바위이다. 매바위는 매우 큰데 안쪽에 패인 자국이 있다.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틈인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한다. 이 매바위는 제부도의 명암으로 오랜 기간의 해식작용에 의해 기이한 모양을 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해

준다. 그러나 매년 매바위 주변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하늘의 용이 인간에 대한 시기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위험한 바위이기도 하다. 반면에 매바위 주변은 갯벌로 이루어져 있어 바지락이나 조개를 잡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제부도 주변 갯벌에는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고 깊은 갯골이 없어 일부 갯벌은 갯벌체험지로 활용되기도 하며, 바위 주변에서는 낚시도 가능하다. 남양반도의 서쪽 끝에 있는 제부도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므로 교통이 편리하여 가족 단위의 1일 휴양코스의 여행지로 적당한 곳이다.

남이 장군의 묘는 화성시와 남이섬에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남이(南怡; 1441~1468)의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할아버지는 개국공신 영의정부사 남재(南在)이고, 아버지는 의산군 남휘(南暉), 어머니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貞善公主)이다.

1457년(세조 3) 17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무직을 역임했으며, 이시애의 난(1467)이 일어나자 출전하여 용맹을 떨쳤고, 여진(女眞)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에도 선봉으로 적을 무찔러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졌다. 이러한 공로로 이등군공을 받았고, 그 뒤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468년에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했으며, 이어 26세에 병조판서에 발탁됐다. 그러나 그 해 신숙주·한명회 등에 의해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등장한 신세력이 제거될 때 형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이 지중추부사 한계희(韓繼禧)에게 남이의 사람됨이 군사를 장악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말한 것을 한계희가 예종에게 아뢰으로써 병조판서에서 해직되어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물러났다. 이 때 그가 궁궐 안에서 숙직을 하고 있던 중 혜성이 나타나자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다.”라고 말했는데, 병조참지 유지광(柳子光)이 엿듣고 역모로 모함함으로써 국문 끝에 능지처참 당했다.

당시 능지처참은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형으로써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거나 팔다리와 어깨·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조금씩 살을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었다.

이와 같은 대역죄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시신 수습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남이의 경우 사후에도 그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로 인하여 가묘를 두어 본래의 묘에 대한 훼손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하나가 현재 남이섬의 남이 장군 묘이다. 남이섬은 북한강에 있는 강섬으로서 원래는 홍수 때에만 섬으로 고립되었으나, 청평댐의 건설로 완전한 섬이 되었다. 남이섬에 있는 남이 장군 묘는 홍살문을 통하면 신도비와 망주석이 있고 금관조복의 문석인과 함께 봉분 1기가 조성되어 있다. 남이 장군의 가묘가 어찌하여 남이섬에 조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남이의 묘가 집안의 의령땅 선산에도 묻히지 못하고 경기도 화성 땅의 한양 조씨 땅 인근에 홀로 묻힌 것으로 보아 긴박했던 상황임을 추측할 뿐이다. 아마도 가솔들이 유품들을 모아 시신매장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섬에는 남이가 묻혔다는 전설이 있는 돌무

더기가 있고, 그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섬을 유원지로 개발하면서 돌무더기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다.

화성의 남이 장군 묘는 남이섬의 석목과 다르게 복두공복을 하고 있어 시기상으로 남이의 매장시기와



남이 묘(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유사한 때이며, 석물의 조성 시기가 남이섬의 그것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묘소는 최근에 정비가 되어 옛 석물은 문인석 1쌍과 산신석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최근에 새로 갖추었다. 최근에 세운 묘표에는 전면에 “병조판서충무공남이장군지묘(兵曹判書忠武公南怡將軍之墓)”라 하였으며 3면에 음기를 기록하였다. 문인석은 높이 169cm, 폭 41cm, 두께 42cm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화성의 남이 장군 묘는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남이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능력 이상의 재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 일화의 하나가 권람의 사위가 된 기이한 설화이다. 소년 시절 남이가 큰 길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어떤 작은 하인이 보자기에 무엇을 싸서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보자기 위에 하얀 얼굴의 사악한 귀신이 앉아 있으므로 기이하게 여겨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 가보니 그 하인이 재상 권람(權擘)의 집에 들어갔고 하인이 들어간 얼마 후 집안에서 곡이 그치지 않았다.

남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권람의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사귀의 농간에 의한 것임을 안 남이는 그 집 하인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 처녀를 살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권람은 별로 믿으려 하지 않다가 그래도 행여나 하고 그를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남이가 처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과연 어여쁜 처녀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있는데, 가만히 살피니 아까 보았던 사귀가 처녀의 가슴에 눌러 앉았다가 남이를 보더니 곧 피해서 달아났고 그로부터 처녀는 차차 소생하였다. 그러나 남이가 나오자 처녀는 또 숨을 거두게 되고 남이만 다시 들어가면 처녀가 다시 소생하곤 하였다. 이 때 남이가 보자기에 싸온 물건이 무엇인가를 집안 식구에게 물어보자 조금 전에 가져 온 홍시를 먹자마자 가슴이 막혀 기절하였다고 말하였다. 남이가 아까 보았던 사귀의 이야기를 권람에게 하고 그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여 죽었던

처녀를 마침내 살려내니 그 처녀가 바로 권람의 넷째 딸이었다. 권람은 딸을 살려 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남이를 사위로 삼게 되었다 한다.

그 외에도 남이 장군이 여진토벌 때 읊었다고 하는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네. 남자가 이십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 하리오’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다.

용릉 · 용주사 관련 설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789년(정조 13) 정조는 배봉산 아래의 사도세자 묘를 현릉원(顯隆園; 뒤에 용릉)으로 바꾸고 수원의 옛 읍치인 화산으로 옮겼다. 합장묘인 용릉의 봉분 아랫부분은 목단과 연꽃 문양이 양각된 12면의 병풍석이 감싸고 있어 조선후기 예술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상석 1좌, 망주석 1쌍, 석양(石羊)·석호(石虎) 각 1쌍, 문인석 1쌍, 팔각 장명등 1좌, 무인석·석마(石馬) 각 1쌍을 배치하여 정조의 효심을



용릉

정성껏 표현하였다. 이어 정조는 1790년 갈양사 터 인근에 능사(陵寺)로서 용주사를 세우고 부친의 명복을 빌었다. 사도세자 기일을 전후한 정조의 능행은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기록과 일화를 남겼다. 용릉과 용주사와 관련한 설화를 소개하여 친근하고 효성이 가득한 18세기 옛 이야기를 들어보자.

① 정조대왕이 용릉을 조성하고 열심히 소나무를 가꾸어 번창하게 되었는데, 언젠가 송충이가 아주 많이 생겨 소나무들이 죽어 가게 되었다. 송충이는 독털 때문에 다른 새들도 잡아먹지 않아 날로 극성하니 정조가 큰 걱정을 하였다. 불개미만이 송충이를 잡아먹는다 하여 전국

에 방을 내려 불개미를 잡아다 능에다 두어도 송충이가 잡히지 않았다. 걱정이 된 정조대왕이 송충이를 입으로 깨물어 죽이니 그런 뒤로부터 송충이가 서서히 줄고 드디어는 소나무가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 이는 새도 잘 먹지 않는 송충이를 효성으로 다스렸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② 용릉은 처음에는 능이라 부르지 못하고 원이라고 불렀다. 정조대왕은 능으로 행차를 할 때 그냥 평복을 입고 말 타고 다닐 때도 있었다. 하루는 정조가 이 곳을 지나다 어떤 나무꾼이 있는 것을 보고, 멀리 있는 사도세자의 묘를 가리키며 “저기 저 것이 뭐유?” 하고 물었다. 나무꾼이 “아니, 능이지 뭐냐고. 원, 무식한 사람 다 보았다.”고 하였다. 왕이 이를 고맙게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상을 후하게 주고, 이후부터 그 곳을 능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③ 비 오고 날 흐린 날 능참봉이 능에 배를 깔고 누워 참배를 하고 있었다. 정조가 이를 보게 되어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능참봉이 “번개 치고 그래서 묘에 계신 임금님이 겁이 나실까 봐 내가 보호해 드리느라고 그런다.”고 대답했다. 정조가 “너는 참으로 정성이 지극하고 충실한 사람이다.”라 하고 상을 내리고 벼슬도 높여 주었다.

④ 용릉을 이장한 후 전국의 사람들 중 수원땅에 살고 싶은 사람을 모아 용릉과 용주사 인근 등에 살게 했다. 어떤 사람이 능참봉이 되어

아주 좋아했는데, 정조가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나 거동을 했다. 그래서 “모처럼 능참봉을 하니까 임금님 거동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다. 무슨 일이 자주 일어나 성가시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⑤ 용주사에는 아주 깊고 물의 양도 풍부한 우물이 있었다. 용주사 절 뒤편으로 중간쯤 올라가면 아주 좋은 못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용주사

여기에 몰래 야장(夜葬)을 하면 용주사의 물이 안 나왔다. 그래서 용주사 우물에 물이 안 나올 때 이 곳을 파보면 영락없이 누가 야장을 해 놓은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⑥ 용릉 앞의 조그만 개울에 네 개의 돌로 놓아진 큰 돌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형제 다리라 한다. 예전에 네 형제가 각각 하나씩의 돌을 져다가 만들었다고 전한다. 지금은 백 사람이 있어도 이 큰 돌을 날라다가 만들기 어렵다.

3·1운동 당시 제암리에서 벌어졌던 일제의 만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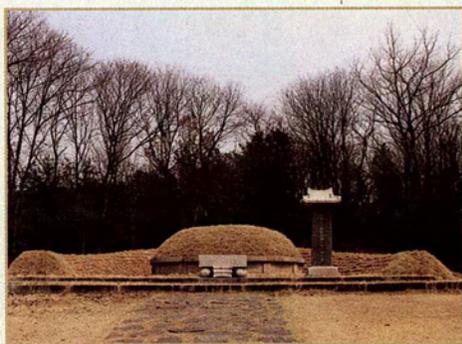
1919년 3월 이후 전국적인 만세운동은 화성땅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니, 화성의 만세운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하고 치열하였다. 현재 송산면 사강시장 인근과 우정읍·장안면 일대에는 일본순사의 처단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특히 3월 28일 송산면 사강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 총기를 난사한 노구찌 순사를 처단한 사건과 3월 31일 발안장 시위를 발단으로 4월 3일 장안면과 우정면의 연합 만세시위가 벌어져 화수리 주재소의 가와바타[川端豊太郎] 순사가 총기를 난사하며 살상을 하자 민중들이 그를 쫓아가 처단하였다. 4월 5일에는 발안장에서 다시 만세운동이 전개되어 주재소를 둘러싸고 투석전을 벌였다. 즉 제암리 학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드러낸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다. 제암리 주변의 격렬해지는 독립운동의 기세를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탄압으로 저지하여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자 벌어진 것이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당시 제암교회에서 일어났다. 제암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일명 두령바위골)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제암교회는 2001년 기념관 건립에 따라 함께 설립된 것이다. 제암교회의 시작은 안중후가 자기집 사랑방에서 1905년 8월 5일 예배를 시작한 이래

1911년 초가 예배당을 마련하였다. 당시 안중후는 마을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중후는 홍원식·김정현·안진순 등과 교회활동뿐만 아니라 야학을 운영하면서 한글교육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1972년경에 안중후의 아들인 안동순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영화 『두령바위』에는 안숙자가 제암리에서 야학을 운영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어 이 지역은 일찍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화에서는 만세운동을 감시하러 온 친일순사 두 명을 제암리 방앗간에서 처단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 진위 여부가 의문으로 남는다. 그러나 입과 입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기록 여부를 떠나 후손들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9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암리 학살사건은 발안주재소 일경들과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78연대 소속 아리따 도시오 중위가 이끄는 헌병 1개 소대 30여 명이 주도하였다. 발안주재소 사사까[佐板] 소장과 친일인물 조희창(趙熙彰)은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서 “지난 4월 5일 발안 장터에서 너무 심하게 매질한 것을 사과하고자 왔으니 15세 이상의 남자 신자들은 모두 예배당에 모이라.”고 했다. 예배가 없던 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선열들은 예배당에 모였다. 사사까는 강단 앞에 서서 호명을 하며 선열들을 일일이 확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치밀한 계획 아래 학살을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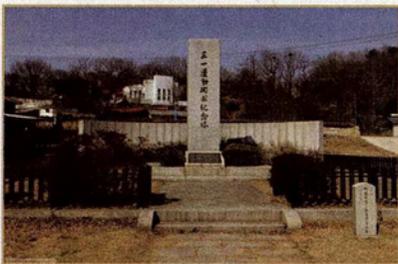
일터에 나가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선열들은 일경을 보내어 불러



제암리 순국 23위 묘

들이기까지 했다. 잠시 후에 일경과 헌병들은 예배당 문마다 나무를 대고 못질을 하여 폐쇄시키고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헌병들은 예배당을 포위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경과 헌병은 예배당 옆집부터 불을 질렀다. 33호의 조용한 초가 마을에 외딴집 한 채만 남겨 놓고 모조리 불태웠다. 이때 예배당 안에서 남자 21명, 예배당 뜰에서 부인 2명이 불에 타는 냄새와 각 가정에서 곡식과 가축과 의류가 타는 냄새는 멀리 떨어진 오산에서도 그 다음날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일경과 헌병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암리 옆 동네인 고주리로 달려가 천도교인 6명을 결박하고 산으로 끌고 가 총을 쏘아 죽인 후 나무더미를 그 위에 놓고 불을 질렀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기에 그들 6명도 희생 대상이었다. 이런 사실은 제암리가 단순한 기독교인만의 희생이 아니라 범종교적인 독립운동의 근원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암리와 고주리의 학살사건 이후 6명의 천도교인은 유족과 주민에 의하여 장례를 치렀는데 제암리에서 희생당한 23명의 유해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인근의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



3·1운동순국기념탑

제암리 학살사건은 제암리 마을만의 희생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지역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만천하에 선언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한 몸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에 자신을 희생

한 제암리 선열들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오늘의 공동체정신으로 계승해야 할 때이다. 제암리 선열들의 민족정신과 이타주의(利他主義) 정신은

90년이 흐른 지금도 두령바위 마을의 곳곳에 살아 숨 쉬며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다.

3·1운동 순국기념관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일본군의 만행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답사할 때마다 ‘더 이상 어둠과 침묵의 공간이 아닌 자유와 희망이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역발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